

2025 summer
동국대학교의료원보
vol.43

gil
good in life
길

함께 지금 하늘

모두의 덕분입니다

저는 생존 7년 차, 여든아홉 살 할머니예요. 뉴스를 보니 암 환자 생존율이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기분이 묘하네요. 나이 앞자리가 ‘8’로 바뀌면서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리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디다. 왼쪽 가슴 옆쪽에 멍울이 만져지고 간혹 전기가 흐르듯 찌릿한 느낌이 오는데 겁이 덜컥 났어요. 애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누구한테 말은 못 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메주를 썼어요. 3년 먹을 된장과 고추장을 담그고 나서야 애들한테 얘기를 했지요.

그냥 살다가겠다고 했더니 애들이 펄쩍 뛰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그걸 어떻게 손 놓고 보느냐’라고요.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지요. 팔순 넘은 할머니가 유방암 수술이라니. 팔다리도 아니고 가슴을 내밀고 진찰받는 것부터 민망스러웠지요. 의사 선생님은 ‘큰일’ 아니라는 듯 덤덤하네요. “얼마 전에도 팔순 어르신 수술을 거뜰히 했다”라며 자기를 믿으래요. 피식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다음엔 술술 흘러갔지요. 입원하고 수술하고, 다 견디지데요. 같은 병실의 50대 유방암 환자는 절 보더니 용기가 난대요. 살면서 누구한테 용기도 주고, 참 진한 인생 경험했습니다.

작은딸이 어릴 적 큰 교통사고로 몇 달, 남편이 뇌졸중으로 몇 차례 입원할 때마다 간호하러 병원에서 지내봤지만 내가 병원 침대에 눕는 건 생각지도 못했지요. 두 번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호강을 했어요. 가만히 누워 바라보니 병원이란 데도 사람 사는 곳이란 생각이 들데요. 밤낮으로 병실을 드나들며 보살펴준 의사와 간호사,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살려준 딸내미, 뭐라도 도와주려던 이웃 환자들. 낯설고 겁나던 병원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동네가 필요하던데, 아픈 사람 하나 다시 일어나게 하는 데도 병원 안팎으로 참 많은 눈길과 손길이 오더라고요. 모두의 덕분에 저는 오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내겠습니다.

03

Intro

모두의 덕분입니다

04

Theme 1

소통과 공감에서
시작되다

10

Theme 2

부처님의 향기,
병원에 머물다

14

Good Doctor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을 지켜내는
하이브리드 뇌혈관 전문의

18

Health 1

건강하게
제대로 살빼기

20

Health 2

역류성 식도염,
원인부터 치료까지

22

Health 3

오십견,
정확히 알고
제대로 관리하기

24

Korean Medicine

여름철 소화불량,
왜 소아와 고령층에게
더 잦을까?

26

Focus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첨단 의료장비로
지역 의료의 허브 역할 강화

28

Team

진심을 잇다
병원을 잇다
진료협력센터

32

Essay

진정한
호국의 길

34

Temple

혼자 걷는 시간

38

Law

식당에서 식중독 사고,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의 길

40

Book

삶이 곧 진리가
되게 하라!

42

News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45

Donation

보시공덕

소통과 공감에서 시작되다

동국대학교병원은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의료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 간의 협력과 존중,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또한 중요한 가치로 삼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심은 정원

한 남성이 은퇴 후 고향집을 고치고 정원을 가꾸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다. 하루하루 땅을 밟으며 활동적으로 살아가던 그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그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가족들은 면회 시간이 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다.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가족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날, 가족들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맞이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본격적인 재활치료가 시작되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의료진이 함께했고, 한마음이 되어 회복을 향해 나아갔다.

운동치료실에서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그를 매일 같이 부축하며 균형을 잡도록 도왔다. 치료사들은 치료를 넘어 그의 곁에서 용기를 북돋고 힘이 되어주었다. 며칠 사이 그는 점차 혼자 앉는 시간이 늘어났고, 마침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를 치료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축했고,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는 입으로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상태였기에 경관식을 통해 식사를 해야 했다. 가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작업치료실에서는 그를 따뜻하게 격려하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컵줄을 제거하고 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오른 팔에도 점차 힘이 돌아와 스스로 손가락을 들고 식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소통 또한 쉽지 않았다. 발음이 부정확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언어치료사의 세심한 지도 덕분에 그의 발음과 목소리 발성이 점점 나아졌고, 결국 예전처럼 목청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왔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의 회복은 의료진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치료 과정에서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때마다 끊임 없이 그를 응원하며, 그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걸어갔다. 환자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나 이루어낸 값진 기적이었다.

이제 그는 다시 시골 고향집으로 돌아가 정원을 가꿀 수 있게 되었다. 봄이 오면 그는 정원에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가꾼 정원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에게 자랑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로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다.

“불안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결까지 해주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고객상담실을 찾았던 환자는
병원 직원의 응대에 신뢰를 느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치료를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원활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환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서비스 개선과 환자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단순히 치료를 넘어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는 것을 목표로,
고객상담실 운영, CS소위원회 활동, 환자경험평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환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 고객상담실 & CS소위원회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고객상담실은 환자 및 보호
자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다양한 채널
(방문, 전화,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함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여 병원 서비스에 반영한다.
민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평가해 민원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주요 민원 사항을 파악
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칭찬 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은 매일 병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매주 의료원장 및 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와 공유한다. 매월 민원 분석 및 개선 활동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반복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민원의 경우, CS소위
원회에서 논의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정기회의에는 PI실장, 진료부원장, 원무팀장, 간호
팀장 등 관련 부서장이 참여해 민원의 해결책을 논의
한다. 민원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 개선 방향을 논의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 예약 수납
절차, 대기시간 지연, 시설 이용 불편 등의 불만 사항이
지적되어 실제로 스마트 앱을 활용한 예약 및 서류
발급 시스템 도입, 병원 내 안내 방송 조정, 환경 정비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 환자경험평가 설문조사 시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환자경험평가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입원·외래·응급실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활용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환자경험평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문조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실시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후 환자들이 남긴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볼 수 있고, 내용이 자동 분류됨에 따라 개선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의료진에 대한 칭찬도 실시간으로 공유
되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병원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따뜻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친절환
응대에서부터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환자를 중심에
둔 병원 문화를 실현하고 있다.

● PEM위원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따뜻하고 친절한 병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병원을 바꾸는
기분 좋은 첫응대’ 캠페인을 실시했다.

‘웃으며 먼저 인사하기’, ‘밝은 목소리로 응대하기’
라는 두 가지 실천 원칙을 중심으로 병원 전반에 긍정
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포스터 전시와 순회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친절 간호사가 알려주는 환자 응대’라는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 문화를 일상 속에 정착시키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은 PEM(환자경험관리, Patient Experience Management)위원회가 주도하며, 환자와 보호자의 실제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개선 활동을 기획·실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PEM위원회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의료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 및 피드백 체계를 운영하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리더십 워크라운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이 부서를 점검하는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반기별로 시행 중이다. 병원장, 부원장, 사무국장, 간호부장 등 경영진이 직접 환자 접점 부서를 방문해 의료진과 소통하며, 환자 안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며,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계획적으로 시행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병원의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 칭찬 릴레이 프로그램 엄지척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긍정적이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위해 ‘엄지척’ 칭찬 릴레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 태도와 긍정적인 행동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엄지척’ 대상자 사례는 병원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직원들은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있다. 개인의 성장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환자들은 병원을 찾을 때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을 안고 온다.

그런 순간, 의료진이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밝은 목소리로
응대해줄 때 환자들은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낀다.

단순한 인사 한마디,

따뜻한 눈맞춤이 큰 위로가 된다.

어떤 환자는 “진료 전에 이미 절반은
위로받고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PEM위원회는 이러한 순간들이
병원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확장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 경제와 보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 2025 APEC 정상회의 협력병원 지정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협력병원으로 지정되어, 21개 회원국 대표단에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국제 행사에서의 의료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지역 병원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 경주권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경주권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의 중진료권을 담당하며, 지역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조정 등 필수 의료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병원 내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해 지역 의료기관, 보건소 및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사업’, ‘정신건강 증진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부처님의 향기, 병원에 머물다

병원 안의 작은 수행자들

병원의 시계는 언제나 빠르게 돌아간다. 춘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실수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수많은 환자와 마주하는 접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때로 마음이 다치고 지치기도 한다.

의료진과 직원들 역시 하루하루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충전하고, 마음을 다독이며 회복하는 시간은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마주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든다. 동국대학교병원의 의료진과 직원들은 부처님께 한 걸음 다가가 고요하고 따스한 경험을 하기로 했다.

산사의 고요함 속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공주시 마곡사 템플스테이,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영주시 부석사 성지순례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도시의 소음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산사의 일주문을 들어서서는 순간, 평화롭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짐을 느꼈다. 산사를 둘러싼 자연과 마주하며 머리는 맑아지고, 소란했던 마음은 점차 가라앉았다.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을 돌아



보는 소중한 기회였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많은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이 소중한 경험은 스스로를 더욱 깊이 성장하게 했다.

시끄럽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진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 고풍스러운 사찰의 건축물을 바라보고 그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큰 울림과 깊은 사유가 가능했다. 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사찰 곳곳을 파스하게 채우고 있었으며, 햇살을 머금은 기왓장을 스치는 바람마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사찰에 얹힌 이야기를 들으며 무량한 인연과 보살의 원력을 되새기고, 우리가 병원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의미도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

사찰 주변의 숲을 거닐며 숲 치유 명상에 참여하는 동안, 작은 들꽃, 막 피어나려는 꽃망울 하나하나가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가볍고 평온해진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스님의 지도에 따라 둥근 동아줄을 함께 맞잡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나를 마주하는 시간

이른 새벽, 미혹의 중생을 일깨우는 법고 소리에 눈을 뜨고, 대웅전 앞에 두 손 모아 예불을 올리며 하루를 열었다.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번잡한 일상 속에서도 평상심을 지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은 점차 고요해졌다.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내려놓는 시간, 참선과 명상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나’를 온전히 마주하는 법을 배웠고, 고요 속에서 만난 내 마음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맑았다. 마치 청정한 연꽃처럼, 탁한 세상 속에서도 피어

나는 평화로움 같았다.

우리는 삶의 의미와 ‘쉽’, ‘함께 함’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물질과 외적 성취보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되새기게 되었다. 일상의 피로움과 피로에서 잠시 벗어나 선재동자처럼 수행의 길을 걷는 이 시간은, 다시금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전의 공덕이 되었다.

부처님 가르침을 품고 다시 병원으로

템플스테이와 성지순례의 인연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법당에 앉아 스님과 나는 차담, 인자한 미소로 중생을 바라보시는 부처님의 모습은 가슴 깊이 울림을 주었고, 그 울림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따뜻하게 품고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을 다짐하게 했다.

부처님께 배운 자비와 평정의 마음을 병원이라는 작은 세상 안에서 실천해 가기를 다짐했다. 부처님을 뵈고 돌아온 우리의 눈빛과 마음에는 어느덧 향기로운 법향이 스며들었고, 동료를 대하는 태도 또한 더욱 온화해졌다.

이제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고요한 산사의 바람결이 머물러 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오늘도 수행자의 마음으로, 환자와 동료, 나 자신을 향해 자비를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간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스며있는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우리 의료진과 직원들은 ‘부처님과 함께’ 자비의를 실천한다. 🌸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을 지켜내는 하이브리드 뇌혈관 전문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외과
이수환 교수

뇌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삶을 뒤흔든다. 뇌출혈과 뇌경색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이름이다. 골든타임 안에 수술과 처치를 받으면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래서 의료진의 빠른 판단과 섬세한 손길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는 개두 수술부터 혈관 내 중재 시술까지 모두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뇌혈관 전문의’ 이수환 교수가 있어, 우리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의 따뜻한 헌신이 오늘도 생명을 지켜내고 있다.

뇌혈관을 다루는 섬세한 의사

정교한 뇌혈관을 다루서일까, 이수환 교수와 인터뷰하면서 섬세하고 꼼꼼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는 스스로를 ‘하이브리드 뇌혈관 전문의’로 정의한다. 수술, 시술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신경외과 내에서도 특히 뇌혈관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한다. 주로 뇌동맥류,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기형(AVM), 뇌동정맥류(DAVF) 등을 다루며, 개두 수술과 혈관 내 중재 시술을 모두 직접 시행한다. 이수환 교수는 평소 틈만 나면 수술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대처하는 연습 덕분에, 그의 환자들은 좋은 수술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진료 현장에서는 매 순간이 생명과 직결된 판단의 연속이다. 이 교수는 40대 후반 여성 환자가 갑작스런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왔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즉시 응급 개두 수술을 시행했고, 이후 추적검사에서 비파열성 동맥류가 발견되어 코일 색전술로 추가 치료해 2차 위험까지 막았다. 긴 치료와 재활 끝에 건강을 되찾은 환자는 “교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라고 웃으며 인사했다. 환자들의 이 한마디에 이 교수는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금 마음속 깊이 되새기곤 한다.

이수환 교수는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의학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지요”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진료 외에도 뇌혈관 중재 시술 및 응급 수술 분야의 임상 연구와 학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최신 치료법을 공유하고, 수술과 중재를 아우르는 치료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와 논문도 발표하고 있다.

“진료는 과학이자 예술이며, 학문적 토대 없이는 완성될 수 없어요. 현장 중심의 연구와 학술적 성찰을 병행하면서, 환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환자, 보호자, 의료진은 동반자

뇌혈관 질환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기는 질환이다. 이 교수는 치료의 성공 못지않게,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심리적으로도 지지를 받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위중한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만 흘리거나 말을 잊지 못하실 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우리는 긴 마라톤을 함께 달려가는 중입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모두 지치지 않고 함께 가야 합니다.”

진료 시에는 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설명과 그림, 그리고 환자 맞춤형 예시를 활용하며, 어떤 질문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중대한 결정을 앞둔 보호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은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생각 때문이다.



뇌혈관 질환, 조기 검진으로 예방 가능

뇌혈관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고, 회복하더라도 평생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고혈압을 비롯해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과음, 비만,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주요 위험 인자이며, 두 가지 이상이 겹치면 위험은 더욱 커진다.

생활 습관 개선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철저히 관리하고, 금연과 절주, 꾸준한 유산소 운동, 저염·저지방 식단 유지가 필수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피하고,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뇌혈관 검진(MRA, CT 등)을 권장한다.

“뇌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조용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치료입니다.” 이수환 교수는 이렇게 강조한다.

의학은 신뢰와 공감, 책임감의 예술이다

학창 시절, 생물학과 해부학 책을 탐독하며 인체의 정교함에 매료됐던 이수환 교수는 윌리엄 오슬러(William Osler) 박사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오슬러 박사는 환자를 단순한 병의 집합이 아닌 ‘인격체’로 대하며, 과학과 인문학의 조화를 강조한 근대 의학의 아버지였다. 이 교수 역시 의학을 기술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공감, 책임감의 예술’로 받아들이었다. 의대 시절 여러 진료과를 실습하며, 그는 유독 뇌와 신경계 질환에 마음이 끌렸다. 뇌는 인간의 기억과 감정, 움직임과 인격을 품은 생명의 중심이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섬세한 판단과 치열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만큼, 더욱 깊이 매력을 느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도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때, 이 교수는 오히려 평온을 느낀다.



이수환 교수는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하나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순간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 환자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교수님이 계셔서 다행이었어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 이수환 교수가 꼭 전해달라는 말을 빠뜨릴 뻔했다.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정상도 어조가 강해 종종 오해받기도 한데, 이수환 교수의 말투는 뽀뽀 해도 환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열정으로 가득한 포근한 의사다. 오해하지 마세요.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외과
이수환 교수

전문진료분야
뇌혈관질환(뇌동맥류, 뇌경색, 모야모야병 등),
뇌혈관미세수술, 혈관내수술, 뇌출혈, 두부외상

건강하게 제대로 살빼기



생활 습관과 환경으로 달라지는 비만 요인

인류 역사는 약 3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인류는 항상 배고픔에 시달려 왔기에, 굶어 죽지 않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살아 남기 위해 인류는 다양한 진화를 해왔다. 그중 하나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 효율이 제일 높은 지방으로 저장하는 능력을 키워왔다.

서구는 200년 전 산업혁명 이후로 먹을 음식이 풍부해졌다. 우리도 경제성장을 이룬 지난 50년간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문제는 우리 신체가 이런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이다. 생존을 위해 오랜 기간 체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을 키워왔는데, 막상 에너지 과잉 시대가 되니 적응하지 못해 비만과 관련 합병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누군가는 비만이 유전 탓이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정말 유전자 때문이라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비만 유전자의 발현은 생활 습관이나 환경 요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분야, 이른바 후성 유전학이 학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있다.

기름은 피하고 당은 낮추자

먼저 음식은 기름과 당이 적은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설탕과 과당이 들어간 단 식품과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먹는 기름과

당이다. 가령 김밥이나 나물, 비빔밥을 먹을 때 참 기름을 과하게 뿌려 먹는 사람들이 있다. 기름이 들어가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과식을 유발해 체중조절을 어렵게 만든다. 기름은 음식의 칼로리를 높일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덜 유발하고 뇌에 식욕을 자극한다.

탄수화물의 경우 흰 쌀밥보다는 잡곡이, 흰 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형태가 좋다. 흰 쌀밥과 흰 빵, 그리고 설탕과 과당의 경우 체내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속히 올린다.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체지방의 축적을 가속화 한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췌장의 기능도 떨어져 당뇨병과 심뇌혈관질환, 심지어 암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잡곡이나 호밀빵, 통밀빵 형태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이들은 다이어트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근육 소실을 불러와 다이어트 후 살이 다시 찌는 요요 현상의 주범이 된다.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는 건강과 요요현상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하루 30분씩 걷고 7~8시간 자기

살 빼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헬스장 등록이다. 물론 여러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이 작심삼일이라는 점이다. 체중감량에는 지속적인 운동이 효과적이다. 백화점 쇼윈도우 보듯이 천천히 걷는 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효과를 얻으려면 약간 숨 가쁘게 걸어야 한다. 즉,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 10분씩 나눠 걸어도 좋으니, 하루에 30분은 채워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재미없는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강요하면 역효과가 난다.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체지방 분해를 방해한다. 일상생활에서 즐기며 하는 운동을 우선해야 한다.

수면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수면 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아도 살이 찐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이다.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누가 더 깊이 자는가에 따라 비만도가 달라진다. 성인 기준 대략 7~8시간 정도 깊이 자는 사람이 비만도가 낮다.

흡연은 체중을 약간 줄이긴 하지만, 내장지방 축적을 가속화시킨다. 음주는 혈액 내 혈당, 중성 지방을 높이고, 복부비만을 유발한다. 혼밥도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식단이 기름지게 되고 음주를 곁들일 위험이 높아진다. 우울증과 스트레스도 복부비만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체중 감량 과정이 스트레스화 되면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다가 더 이상 빠기 어려워진다.

비만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병의 근원이다. 비만의 예방과 관리는 여러 면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효과적인 약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운동·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 없이는 비만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어렵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 특성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나 살을 뺄 수 있다. 하지만 비만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지 않으면 빼기 어렵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

전문진료분야
가정의학, 비만, 건강증진, 영양의학,
노인의학(비만클리닉)



역류성 식도염 원인부터 치료까지



역류성 식도염(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은 위산이나 소화 효소가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만성 질환으로, 주된 증상으로는 속쓰림과 역류가 포함된다. 그러나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위·식도 접합부에서 관찰될 수 있는 바렛식도, 식도 선암 및 단순한 소화기 증상을 넘어 만성 기침, 후두염과 같은 외식도 증상의 유발까지,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 질환들이 확장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병태생리학적 이해

역류성 식도염의 병태생리는 다중 요인에 의해 복잡하게 형성된다. 주요 원인으로는 하부 식도 괄약근의

이완, 식도 산 제거 능력 저하, 위 배출 지연, 점막 방어 능력 손상 등이 있다. 또한 해부학적 요인인 위·식도 접합부의 탈장이나 내장 과민성도 역류성 식도염 발생에 기여한다. 역류한 물질에는 위산뿐만 아니라 담즙과 췌장 효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점막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위험 요인 및 생활 습관

역류성 식도염은 다양한 위험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 흡연, 음주, 비만, 식습관, 신체활동의 부족이 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역류성 식도염 발생 위험이 23% 더 높고, 알코올 섭취는 하부 식도 괄약근 압력을

감소시켜 역류를 촉진한다. 비만, 특히 내장 지방 증가와 허리-엉덩이 비율(WHR)이 높은 경우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단 음식과 섬유소 부족은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며, 신체 활동 부족 및 식후 바로 취침하거나 눕는 행위는 역류성 식도염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진단 및 치료

역류성 식도염의 진단은 가장 손쉽게 PPI(Proton Pump Inhibitor, 프로톤 펌프 억제제) 또는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와 같은 역류성 식도염 약물을 2주 복용한 후 증상이 호전되는지 확인하는 약물반응 테스트부터 24시간 pH임피던스, 식도 압력측정, 내시경을 통한 위식도 접합부의 점막 확인 등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이는 비교적 환자의 증상에 집중하였던 몬트리올 합의(2006)와 객관적인 지표를 강조하는 리옹 합의(2018)와 같은 꾸준한 연구와 토의를 바탕으로 한다.

치료 측면에서는 약물 치료와 외과적 접근이 병행되고 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는 오래전부터 표준 치료로 사용된 약물로 위산 분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 최근에는 칼륨 경쟁적 산 차단제(P-CAB)가 등장해 동아시아권(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침습적 치료로는 약물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내시경적 위추벽 성형술(endoscopic fundoplication), 내시경적 고주파 에너지 전달(endoscopic radiofrequency procedure; Stretta®), 항역류내시경 점막절제술(anti-reflux mucosectomy)이 있으며, 수술적 위의 상부를 식도 하단에 감싸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높이는 항역류 수술(Nissen Fundoplication)이 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한 소화기 질환을 넘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복합적 문제다. 의료진은 최신 진단 기술과 치료법을 활용하여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접근법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관련 합병증에 대비해야 한다. 환자는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생활 습관 교정 및 적절한 관리를 통해 본인 스스로 질환의 치료에 참여한다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소화기내과

윤도경 교수

전문진료분야
위, 대장암 진단 및 치료내시경,
상하부위장관질환, 간 및 췌담도 질환



reference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자료 불응성 위역류질환의 치료
위식도 역류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서울 진료지침 2020

오십견 정확히 알고 제대로 관리하기



오십견은 건관절의 내재적 질환 없이 능동적 및 수동적 운동 제한이 동시에 발생하고 통증이 동반되는 만성질환이다. 의학적 진단명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동결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오십견은 50대에 가장 흔하며 인구의 2~5%는 일생에 한 번 앓는다.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의 2배 이상이며, 주로 쓰지 않는 쪽의 어깨에 더 많이 생긴다.

원인은 자가 면역 이론, 콜라겐-혈관 이론, 상견 갑신경 압박 등 여러 이론이 있으나 현재까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병리소견상 견갑상완관절 관절낭의 염증, 섬유화 및 유착과 오구상완인대 및 회전근 간격 관절낭의 구축 등이 보인다.

오십견 진단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깨관절의 능동적 운동과 수동적 운동이 같은 정도로 감소하는 현상이다. 환자는 대개 점진적인 건관절의 운동 제한과 통증을 호소하고 통증은 밤에 심하여 흔히 수면장애를 초래한다. 경미한 외상 후에 운동 제한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별한 외상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운동제한이 시작된 것을 기억하기도 한다. 통증은 보통 밤에 더 심하며 그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운동은 모든 방향으로 제한되나 외회전 제한이 특히 현저하다. 그러나 건관절의 운동 제한과 통증은 다른 여러 질환에서도 나타나는 비특이적 증상이므로 특발성 오십견의 진단은 다른 질환을 감별한 후에 진단된다. 오십견과 감별을 요하는 질환 중 흔한 것으로는 호발 연령이 비슷한 회전근개 질환이 있다.

병의 단계는 통증기, 유착기, 해리기의 3단계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유착기에 들어서면서 통증은 조금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운동은 통증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환자는 운동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옷 입기,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 스포츠 활동 등의 일상 동작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1년 정도 지나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통증의 완화와 운동범위의 회복을 보인다. 운동범위가 회복된 후에도 간혹 환자는 어깨가 뻣뻣하거나 간헐적인 통증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가 경미하다.

치료의 목적은 병의 경과 기간이 일 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므로 일차적으로 통증의 지속 기간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통증의 완화는 운동 프로그램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여 운동범위와 기능의 회복을 돕는다. 통증의 완화를 위해서 단기간의 안정,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투여와 TENS 등의 물리적 요법을 사용한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국소주사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

운동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은 구축된 관절낭에 대한 수동적 신장운동이다. 꾸준한 수동적 신장운동은 구축된 관절낭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어 증상을 완화하고 유병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적은 수의 환자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운동 제한이 남을 수 있는데 그 경우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이용하여 호전시킬 수 있으며 특히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낭 유리술이 최근 우수한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구체적인 운동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동적 신장운동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은 느린 속도로 하며 통증을 느끼는 마지막 포인트에서 운동범위의 동일한 힘을 지속적으로 수 초간 유지한다. 이는 우리 몸의 연부조직이 점탄성을 갖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지속적인 저항을 주어야 적은 힘으로 신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운동의 강도는 조직에 자극을 줄 정도이나 심한 통증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운동을 마친 후 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건관절의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운동의 강도가 너무 심하여 조직 손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운동의 강도를 줄인다.

셋째, 운동 전의 더운 찜질은 국소의 순환을 증가시켜 운동의 효과를 높이며 운동 후의 얼음찜질은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국소부종을 감소시킨다.

특발성 오십견은 기본적으로 자연 치유가 가능한 질환이며 다른 질병을 감별한 뒤 진단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동통과 운동 제한을 초래하는 건관절의 여타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오십견의 진단을 받은 후에는 오랜 기간이 지나야 호전이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잘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필요 없는 절망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정형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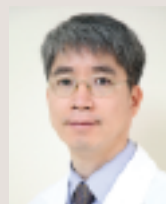
이호민 교수

전문진료분야
어깨 관절 질환 및
외상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 질환



여름철 소화불량, 왜 소아와 고령층에게 더 잦을까?

여름철은 무더위와 냉방 환경이 반복되며 체력 소모가 많고, 자칫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특히 조금만 먹어도 자주 체하는 소아와 고령층에게는 여름이 더욱 부담스러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냉방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급격한 온도 차는 비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더욱 빈번히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소아와 고령층이 여름철에 유독 소화기 관련 불편을 겪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내과 정승현 교수

전문진료분야 ▶ 중풍전조증, 중풍후유증,
가슴두근거림, 손발저림 · 시림 · 떨림, 두통,
현훈, 만성기침, 천식, 다한증



여름철에 더 자주 체하는 이유

● 선천적으로 약한 비위 기능

한의학에서는 소화 기능을 ‘비위 기능’이라 표현합니다. 이 기능이 약한 소아나 고령층은 평소에도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원활하지 않으며, 자주 체하거나 배탈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질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소화기계가 약한 경우 자녀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잘못된 식습관

소아와 고령층은 모두 위장 기능이 예민하여 만성적인 식체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통, 입냄새, 구토, 잦은 설사, 심한 방귀 냄새, 입 마름, 두근거림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 될 수 있으며, 이는 급작스럽기보다는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 알맞은 음식 섭취와 식사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 스트레스 및 환경 요인

‘비위를 맞춘다’는 표현처럼, 비위 기능은 감정적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 강압적인 분위기, 불규칙한 수면 등은 비위의 기 순환을 방해하여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외 온도 차가 큰 냉방 환경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소화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름철 소화기 건강을 위한 관리법

소아와 고령층이 여름철에도 편안한 소화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얇은 겉옷이나 복대를 착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과식, 야식,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특히 취침 전 음식 섭취는 삼가야 합니다.
- 무리하게 음식을 권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위한 추가 관리 팁

단순한 소화 문제를 넘어, 여름철에는 다양한 환경 변화 및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제안하는 여름철 건강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염 대비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사병은 체온이 37~40도까지 상승하며 피로감, 현기증 등을 유발하고,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의식 저하와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시에는 모자를 착용하며,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식중독 예방

세균이 활발히 증식하는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조리도구 및 손 위생에 주의하고, 냉장 보관 식품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어패류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하며, 간 질환이 있거나 고령자, 당뇨병 환자는 생해산물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냉방병 예방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한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고, 자주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는 배를 덮고 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일본뇌염 등 모기를 통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모기 활동이 활발한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의 외출을 피하고, 긴 옷 착용 및 모기 기피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방충망과 모기장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첨단 의료장비로 지역 의료의 허브 역할 강화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첨단 의료장비의 지속적인 도입을 통해 진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밀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 기반을 갖추고 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고도화된 장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수도권 수준의 정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과 진료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4세대 로봇수술 장비 다빈치 X / 다빈치 SP

4세대 첨단 의료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DaVinci)’는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사용되며,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다빈치 X와 다빈치 SP 2대를 운영하고 있다.

다빈치 로봇수술 장비는 초고화질 3D 영상으로 조직과 혈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 중 접근이 어려운 부위까지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개복술에 비해 절개 부위가 작아 출혈, 감염, 통증을 줄이고, 입원 기간 단축과 흉터 최소화로 환자 만족도가 높다.

다빈치 X는 4개의 로봇 팔을 이용해 여러 기구를 동시에 사용하며, 정밀한 수술이 필요한 신경 및 혈관 수술에 적합하다. 다빈치 SP는 하나의 로봇 팔에 3개의 수술 기구와 고화질 카메라가 연결되어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작은 절개로 수술을 진행해 흉터와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첨단 듀얼소스 CT 장비 소마톰 포스(Somatom Force)

영상의학과에 도입된 듀얼 소스 CT인 ‘소마톰 포스(Somatom Force)’는 빠른 검사 속도, 낮은 방사선량, 고해상도의 영상 구현으로 정밀한 진단 및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최대 1/10의 방사선량과 소량의 조영제만으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량이 적고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도 조영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전하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CT 중 가장 빠른 속도의 촬영으로 숨을 참기 어려운 노인, 어린이, 응급환자도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며, 한 번의 검사로 심장, 폐동맥, 대동맥의 이상 여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급성 환자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맞춤형 방사선 암 치료 장비 바이탈빔(VitalBeam)

방사선종양학과에 도입된 방사선 암 치료장비 ‘바이탈빔(VitalBeam)’은 CT나 MRI 영상을 바탕으로 병변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IGRT) 기능을 통해 주변의 정상조직은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다.

특히, 단시간에 고선량의 방사선을 종양 부위에만 정확히 조사하는 정위적 체부 방사선치료(SBRT)는 조기암이나 전이성 암 치료에 효과적이다.

또한 각 치료 방향마다 방사선의 세기를 다르게 조절하여 종양의 모양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세기 조절 방사선치료(IMRT), 그리고 이러한 최신 방사선 치료법을 융합한 입체 세기조절 회전 방사선치료(VMAT)로 정확도 제고는 물론 치료 시간과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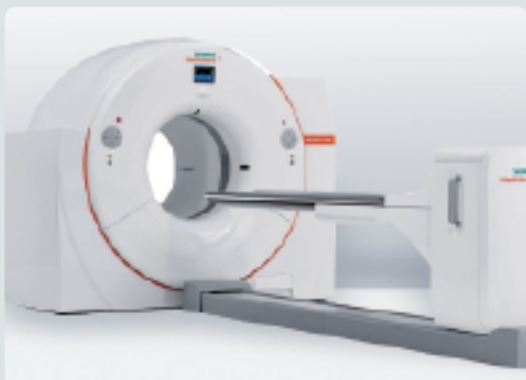


정밀 암 진단 장비 PET-C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핵의학과에 도입된 ‘PET-C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는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동시에 대사 과정을 영상화해 암이나 악성종양의 정확한 위치 파악은 물론, 암 확진 이후 전이 여부 추적, 치료 효과 판정 등 암의 전주기 진료 과정에 필수적인 고정밀 영상 장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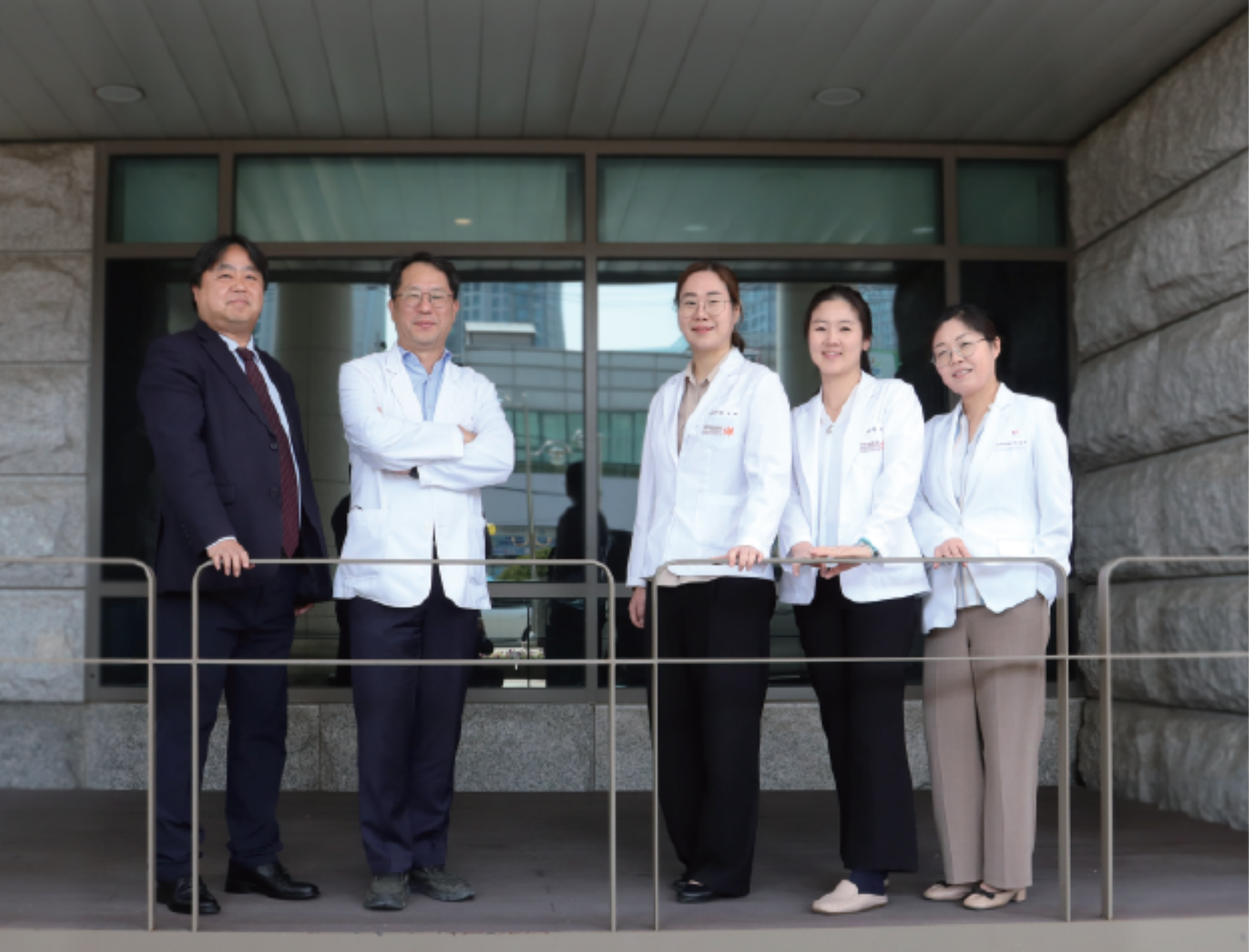
암을 비롯해 치매, 파킨슨병, 노인성 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등 다양한 질환의 조기 진단에 활용되며, 세포 수준의 대사 변화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어 병기 설정에도 효과적이다.

PET-CT의 도입으로 암 및 다양한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부터 맞춤형 치료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진심을 잇다 병원을 잇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료협력센터



환자와 병원 간의 튼튼한 다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1층 주 출입구로 들어서면 안내데스크 왼편에 자리한 진료협력센터가 환자를 맞이한다. 이곳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는 간호사들 덕분에 마음이 환해지는 공간이다.

진료협력센터는 지역 병·의원에서 큰 병원으로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혹은 동국대학교병원 진료 후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는 부서다. 지역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돕는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병원 내 각 진료과 의료진은 물론 외부 병원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원활한 진료 체계를 만들어가는 핵심 부서다.

의료지식과 현장 이해도가 필요한 업무인 만큼, 진료협력센터는 의료진과 행정 인력이 함께 팀을 이루고 있다. 재활의학과 이호준 교수(센터장)를 중심으로, 김선경 파트장(행정), 그리고 간호사 홍은정, 최재원, 권보경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환자에게 최적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환자의 시간을 지켜드립니다

지역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찾았다면,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은 진료 협력센터다. 의료 지식이 부족한 일반 환자들이 잘못된 진료과를 예약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센터의 간호사들이 진료의뢰서를 면밀히 검토해 가장 적절한 진료과와 시간으로 예약을 도와준다.

특히 ‘당일 의뢰-당일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진료 협력센터 전용 진료 세션을 운영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진료협력 센터는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준다. 진료협력센터 간 핫 라인을 통해 환자가 희망하는 병원과 진료 가능 병원의 접점을 찾아 직접 예약까지 지원한다.

최재원 간호사는 “응급한 환자를 도와드릴 때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실감합니다. 한 환자를 의뢰하기 위하여 상급병원 10곳에 연락한 적도 있어요. 환자 의견과 병원 사정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죠. 이 과정을 환자 본인이 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라고 말한다.

진료협력센터는 또한 회송 업무도 맡고 있다. 회송이란, 상급병원에서 진단과 처치를 받은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나 약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역 병원인 동국대학교병원으로 이어받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유전질환인 헌터증후군을 진료 받는 청소년이, 지속적인 투약과 관리가 필요해 동국 대학교일산병원으로 회송된 바 있다. 희귀 질환인 만큼 치료제가 구하기 어려운데, 진료협력센터에서 회송 내용을 확인하고 진료과에서 약제를 신청하여 안정적으로 주 1회 투약과 관리가 가능했다. 회송이 없었다면, 이 환자는 매주 고양시에서 서울까지 긴 시간을 들여 야만 했을 것이다.



진료정보교류서비스, 환자 시간을 절약하는 새로운 연결망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진료정보교류서비스’는 환자들에게 반가운 변화다. 이 서비스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병원 간 CT, MRI, 진료의뢰서 또는 진료회송서, 처방전 등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환자는 이전 병원에서의 진료 이력을 현재 병원에서도 참고할 수 있어 치료의 연속성은 강화되고, 진료 속도는 빨라지며, 중복검사나 처방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자료를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되어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최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료협력센터에는 고양, 파주, 김포 등 인근 지역뿐 아니라 평택 등 비교적 먼 곳에서 의뢰서를 들고 오는 환자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진료자료를 CD에 담아오다가 누락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얼마 전에도 한 환자가 MRI 영상을 빠뜨리고 내원했지만, 진료정보교류서비스 덕분에 병원 간 직접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어 곧바로 진료가 가능했다.

이제는 주요 대형 병원마다 진료협력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빠른 병원 간 연계 진료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료협력센터는 경기북부 진료협력센터 간호사회와 정기적으로 만나 더 원활한 협업 방안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진료정보교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환자의 시간을 아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연결망이 되고 있다.

서로의 지지와 응원으로 밝은 에너지 가득

진료협력센터가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한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하거나, 타 병원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다. 그만큼 환자나 보호자들이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인 경우가 잦다. 때로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상황도 있지만, 센터의 팀원들은 늘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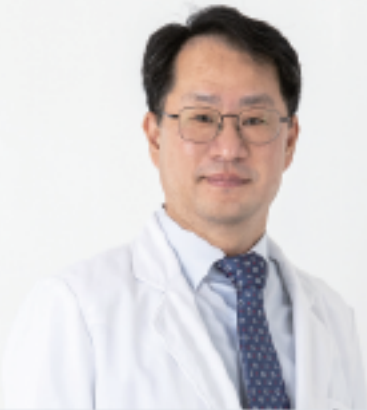
이런 긴장감 속에서도 소진되지 않기 위해 팀원들은 서로 돕고 지지하며 일한다.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분위기 속에서 티타임을 갖거나 소규모 단합 활동을 하며, 환자에게 늘 밝은 얼굴로 다가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본다.

행정을 담당하는 김선경 파트장은 병원 내 여러 부서와의 협업뿐 아니라 외부 병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우며 든든한 가교 역할을 자처한다.

진료협력센터의 다섯 명 구성원은 환자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 어린 미소로 빠른 쾌유를 응원하며 오늘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 헌신하는 멤버들



이호준 센터장(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진료협력센터의 주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상급종합병원과 1·2차 의료기관 간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진료 연속성과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진료 의뢰·회송의 허브로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인 의뢰회송시범사업에 더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였고 4월부터는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환자분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진료협력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협력기관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진료 연계, 불필요한 반복 검사 방지, 진료 이력의 연속성 유지, 협력기관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의 전문성과 최신 진료정보 활용,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료협력센터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올해 1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이 시작되고 곧바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도 도입하면서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다른 부서와 협조도 이끌어내야 했는데 부서원들이 팔 걷고 나서서 모두 해냈습니다. 간호사들은 경력이 많아 능숙하고, 파트장은 행정업무 경험이 많은 베테랑입니다. 구성원의 숫자는 적지만 역할 분담과 상호보완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 만파위가 강점이겠지요. 또한, 우리 센터의 장점은 패스트 트랙인데요,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내 부서 간, 타 병원 간 핫라인을 설치하여 빨리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우리 센터의 팀원들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헌신하는 멤버들입니다. 센터장으로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염 화 미 소
拈 華 微 笑
무여스님

진정한 호국의 길

한 해의 중간에 위치한 6월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현충일과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6·25가 있는 달이다.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조상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의 터전,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수많은 호국영령들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어떻게 호국을 실천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만해 스님께서는 《조선불교유신론》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마음이 나쁘거나 행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방관자’.”라고 하셨다.

방관자는 바로 구경만 하는 자, 무책임한 자, 책임지지 않는 자이다.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국민의 자세일 것이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근본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치우쳐서 일을 그르치지 말고, 보다 넓고 깊은 안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힘써 행해야 할 것이다.

선인 한 사람이 세상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악인 한 사람이 세상을 어둡고 불행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에서 벗어나,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한다’라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생각을 갖고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 다음은 기약할 수 없다.

『증일아함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기의 마음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게으르지 않은 것이 행복한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게으름이 수행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부지런히 정진하고 게으르지 말도록 하라.”

깨달음을 증득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게으름과 안일함, 나태함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꾸준히 노력한다면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행에 옮기는 일만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아는 데에 그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작은 선도 매일 행하면 큰 복은 받지 못해도 화가 저절로 멀어지고, 작은 악도 매일 행하면 큰 재앙이 없더라도 복이 저절로 멀어진다. 선행과 악행의 결과가 훗날 복덕과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다.

“

방관자가 아닌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함을 되새긴다. 게으름을 경계하고 선행을 실천하여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

”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복덕으로 가득한 밝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재앙으로 가득한 어두운 미래를 만들 것인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내면의 힘을 키워 욕심,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고 베풀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지니고 살면 좋겠다.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에는 우리의 터전, 국가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며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보다 넓고 큰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면 좋겠다. 🌸

템플 스케치
제주도
제주시
관음사

혼자 걷는 시간

#1

제주에도 시내버스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제주도 여행의 교통수단은
다른 선택지를 두지 않고 늘 렌터카였다.
제주의 도로에서 수없이 많은 버스를
마주쳤지만 그 존재를 의식했던 기억이 없다.
토요일 이른 시간에 버스에는 아무도 없었다.
큰 도로를 벗어나자 금세 좁은 마을 도로를
달렸다. 시골 버스를 언제 타보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고등학생 때 고모님 댁에
놀러가 탄 것이 가장 최근이었으니
30년이 훨씬 지난 일이다.

어떤 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존재하는데도 내가 그것을 잊고 살고 있다.
물건도 장소도 사람도 그렇다.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그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에게
잊혀진 그것, 그 장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본다. 나와 인연이 닿아있음에도
내게 잊혀진 존재들에게 미안해졌다.



#2

섬과 종교 성지는 전방위의 개방과 봉쇄, 비밀스러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섬 안에 자리 잡은 사찰이나 수도원, 성당, 신사 등은 그 성격이 더 짙다. 사람이 섬이나 깊은 산 속의 성당, 절, 하다못해 도심 속 기도처를 찾는 이유는 믿음과 신앙의 의미뿐 아니라 원초적인 폐쇄 욕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지만 때로는 스스로 세상과 잠시라도 단절시키고 싶은 마음, 오로지 자신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 말이다.



#3

나를 포함해 도보 여행자는 유독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로지 자신의 걸음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자신의 걸음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다. 혼자 길을 찾고, 걸으면 힘들고 지쳐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몸은 힘들지만 오히려 머리는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 자연의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깊은 숲길에 혼자 있어 보면 홀로 걷는 여행의 약효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만 들여다보는 시간은 여행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점차 확대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다.

#4

작은 탁자를 앞에 두고 모여 차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듯한 모습의 석불 곁에 앉았다. 관음사의 공간 배치가 포근하게 가슴 여기저기를 쓰다듬는 기분이었다. 편안함과 행복감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우리는 식당에 앉아 밥을 주문하고 주문한 식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식사 후에 할 일을 생각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 바쁘고 성실하게 살지만 그것은 겨우 당장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쁘게 사느라 그 삶의 의미와 가치, 꿈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어찌 될지 모를 미래의 행복을 위해 당장의 행복은 모르고 산다. 지난날 꿈꾸었던 미래의 행복한 날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르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뒤로 미루며 살고 있다.



#5

수행자들은 ‘비움’의 길을 찾고 있다. 자신을 비우고 비워 얻으려는 것은 어찌면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삶이 아니라 끝없이 채울 수 있는 여유, 현재의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일지 모른다. 어떤 것은 있어서 좋고, 그것은 없어서 좋으며, 많은 것도 만족하고, 부족한 것도 아쉬워하지 않는 마음을 발견하는 것 말이다.

글 · 그림 **배 종 훈**
낮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밤과 주말에는 여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느긋한 외로움을 즐기고 있다. <출간도서> 유럽을 그리다,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마음을 두고 외도 괜찮아, 행복한 명상키튼 외 다수.

식당에서 식중독 사고,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의 길

여름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음식물이 부패하기 쉽고,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생긴다. 개인이 가정에서 음식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식중독에 걸린 경우에는 본인이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지만,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식중독에 걸린 경우에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오애순(가명)은 처음으로 어촌계 계장에 당선되었고, 40명의 계원들에게 당선 기념으로 부상길(가명)이 운영하는 부상 식당에서 굴 보쌈을 대접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함께 굴보쌈을 먹었던 계원들 전원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거의 2주 가까이 일도 못 하게 되었다.



오애순은 부상길에게 부상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식중독에 걸린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부상길은 증거가 있냐고 하면서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 이때 오애순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첫째로,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위반하여 손님들에게 설사, 발열 등 식중독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이를 영업허가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취소된 영업과 동종 영업 허가를 받는 것도 제한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둘째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나서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데에는 전문가의 감정 등 절차가 필요하다.

“

식중독, 식당 책임일까?
형사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은?

”

식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먼저 진단서 및 의무기록이 필요하다. 식중독 또는 관련 질환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록, 증상 발현 시점과 음식 섭취 시점 간의 시간적 관계가 기재된 의무기록,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가 필요하다. 또, 혈액검사, 대변검사 등을 통한 식중독 원인균 검출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식당에서 식사한 날짜와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동일 증상을 보인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면 음식과 식중독 사이의 인과관계가 더 쉽게 인정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민 형사상 법적인 구제 절차 진행 및 필요한 증거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오애순은 제때에 적절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법정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 배상을 완료할 수 있었다. 🌻

클 주상은

現 원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및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수용재결,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사건을 다룬다.

삶이 곧 진리가 되게 하라!

“밧디야여, 그대는 소문으로 들은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마라. 대대로 전승되어 왔고
성전에 있는 말이라도 그대로 믿지 마라.
그 말이 논리적이라 생각해도,
추론이나 적절한 이유라고 생각해도,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생각해도,
또는 유력한 자나 스승이 한 말이라도
그대로 따르지 마라.”

《앙굿따라 니까야》〈밧디야 경〉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파격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위에 인용한 경전
말씀도 그중 하나지요. 성전이나 스승의 말이라고 한들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불자 입장에서 생각
해 보면, 이 말은 부처님의 말조차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보통 한 종교의 교조쯤

되면, 아니 작은 공동체를 이끄는 수장 정도만 되어도
자기 말을 믿고 따르라고 강조하기 마련인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교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자작자수(自作自受)’
라는 게 있습니다. 깨달음이든 괴로움이든 다 자기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인과론을 표현한 말입니다. 알다
시피 부처님은 진리를 발견한 분입니다. 세상에 없던
진리를 만든 분이 아니지요. 본래 있던 것을 깨달아
알았고, 누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길을 안내해 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해야 하는 대상이지요. 말하자면 부처님은
‘진리의 이해’가 아닌 ‘진리의 체득’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의 이치가 피부로 와닿고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전자보다 후자가 몇 배는 더 힘들고
고단합니다. 불교를 어려운 종교라고 말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음 혹은 진리에 대해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정신과 의사인 전현수 박사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
온 불자이자 초기 불교 수행자입니다.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체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집중
수행을 위해 진료실 문을 닫을 만큼 열성적이었지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신 치료에 접목해
‘불교정신치료’라는 자신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
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불교
사용 설명서》는 40여 년 삶에서 불교를 배우고 실천해
온 전현수 박사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가르침을 골라
엮은 책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초기 불교의 지혜를 담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고탐마
부처님, 교리와 계율, 윤회와 업, 각종 수행법을 소개
합니다.

전현수 박사는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한 말이니까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연 맞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저자가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불교를 대하고 행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군가는 불교를
위대한 철학이나 사상이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지요.
이 책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이 전한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그러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불교 사용 설명서
전현수 지음

많이 배워 법(法)을 알고 재치가 있는
훌륭한 친구를 가까이하라!
많은 이익 있을지니 의심 버리고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Sn. 0058.

초기 경전 《숫따니빠따》에 나오는 게송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가까이하라. 그와 같이 배우고 그와 같이 실천하며
살아가라.’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이
책을 권합니다. 지식이 아닌 삶의 지혜로써의 불교, 한
사람이 평생의 노력으로 검증해 낸 불교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 나가 보라고 말이지요! 🌸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이해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 백용해 병원장 취임식 개최

동국대학교 이해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백용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의 취임식이 지난 3월 11일, 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큰스님,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 등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병원장의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해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 교직원의 단합을 강조하며, △스마트 의료 △미래 의료 선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및 전국 확장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의료 실천 △교육 기능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백용해 병원장은 화합과 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강조했고, 돈관 큰스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협업을 통해 의료원의 발전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최우수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2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동일 병원 외래에서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실시한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구조적 측면과 혈액투석 정기 검사 실시 주기, 적절도, 충족률 등 총진료 과정과 결과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 주관기관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은 병원의 우수 자원을 개방하고, 임상의학의 아이디어와 창업기업의 기술·제품을 연결하여 기업의 성장과 의료현장의 미충족 의료 수요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19년부터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해 오며, 의료진과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다.

개방형 실험실 입주기업 테크빌리지 VR BBT 임상시험 결과,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우수 구연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방형 실험실 권범선 구축사업단장과 테크빌리지가 공동 연구한 가상현실(VR) 기반 수치 기능 검사 Virtual Reality Box and Blocks Test(VR BBT)의 임상 시험 결과가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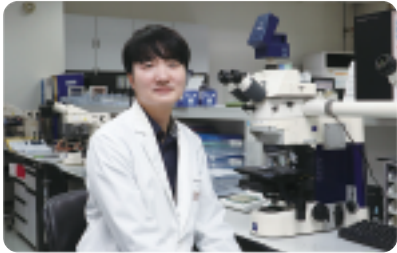
이번 연구는 개방형 실험실 지원기업인 테크빌리지와 협력하여 서울대학교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다기관 연구로 진행됐다. 그동안 환자의 수치 기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정밀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알려진 BBT를 가상

현실 환경에서 구현한 VR BBT로 개발하여, 가상현실 기반 검사와 치료가 뇌신경 재활 분야 임상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이태근 교수, 대한진단혈액학회 학술대회 최우수 구연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태근 교수가 지난 3월 1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진단혈액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태근 교수는 ‘한국인 만성림프구성백혈병의 클론성 재배열의 유전자 사용과 체세포과돌연변이의 분포(Immunoglobulin Gene Repertoire and Somatic Hypermutation in Korean Patients with Chronic Lymphocytic Leukemia)’라는 연구를 통해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을 활용하여 아시아인에서 면역글로불린 유전자 클론성 재배열의 repertoire를 최초로 규명했다.



산불재난 성금모금 및 문화유산 피해복구 위한 발원법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4월 28일 병원 법당에서 산불재난 성금모금 및 문화유산 피해복구를 위한 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소중한 문화

유산의 조속한 복구와 지역의 회복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전 교직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성금은 병원 교직원과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분당한방병원, BMC교직원불자회 ‘보현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내원객 모금함 등을 통해 이뤄졌다. 모금된 성금은 총 17,180,650원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 지원과 문화유산 복구 사업에 전달될 예정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네트워크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 협약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10일,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레이비즈니스그룹, 비티메디, 에스제이바이브, 지킴스, 코유라 등 총 5개 업체가 참여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협약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건강검진 업무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22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양질의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임직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 건강검진을 포함해 입원 치료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백용해 병원장, 이광훈 동서의학 건진센터장, 박기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관리처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병원 홍보, 기금모연 및 의료지원 부스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여해 홍보, 기금모연 및 의료지원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큰스님,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 이해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백용해 병원장을 비롯해 많은 불자와 스님들이 병원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기금 모연에 뜻을 함께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매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여하며 불교계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박람회 관람객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 지원 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불교종립 병원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제23대 신혜경 병원장 취임식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4월 24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임 병원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신임 병원장의 비전과 각오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혜경 제23대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APEC 지정 협력병원으로서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고도화된 인프라 구축 △스마트병원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환자 편의성 증대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공공적 역할 완수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지역의료로 선도하는 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신혜경 병원장은 “모두가 존중받고 자긍심을 느끼는 병원 문화를 만들고, 교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방사선종양학과, 대한방사선사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 수상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방사선종양학과 함일식, 손찬희, 최현경, 황다현 방사선사가 지난 4월 5일에 열린 2025년 대한방사선사협회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유방암 환자를 위한 표면 유도방사선치료(SGRT) 시스템 활용에 대한 임상적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구로써 환자 치료의 정확도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대구

·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방사선사 전원이 치료 전문 방사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적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간호부 정숙희 부장, 대한병원협회장 표창 수상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간호부 정숙희 간호부장이 지난 3월 26일 열린 '2025년도 대구경북병원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대한병원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환자 중심 간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원 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간호 서비스 제공에 힘쓸 계획이며,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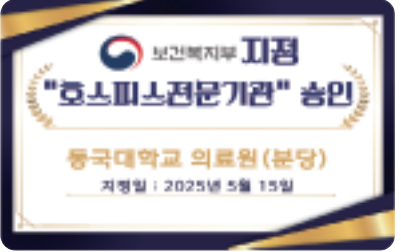
영덕군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영덕군 산불 피해 재해민들을 위해 4월 3일 영덕국민체육센터에 현장응급진료소를 설치하고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김수성 중환자실장을 포함한 간호사, 약무직원 등 총 8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지원팀은 피해 주민들의 진료, 혈압, 혈당 측정, 건강 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신혜경 병원장은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재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승인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이 5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 받았다. 병원은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철저한 의료 및 시설 평가를 거쳐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지정을 통해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성남시 내 두 번째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되었으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 돌봄 체계를 더욱 체계적이고 확장된 형태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부처님오신날 맞아 봉축법회 봉행 및 산불 재난 성금 전달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4월 24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지도 법사 보경스님은 법문을 통해 "즉사이진(卽事而眞), 매사에 진실하라"며 "어린이처럼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불자의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산불 재난 성금 전달식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전달됐다. 모금된 성금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를 통해 피해민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컵등 공양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마니회는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컵등 공양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도 법사 보경스님과 김근우 병원장, 금동호 마니회장이 직접 참여해, 마니회 회원들과 함께 정성껏 만든 컵등을 병동의 환우들에게 전달했다. 보경스님은 "작은 컵등이지만 지쳐 있는 환우들이 잠시나마 병상의 고통을 잊고 마음에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자비가 모든 아들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앞으로도 환우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양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시 공덕

용화사 **지용스님**이 2월 6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지용 스님은 시골의 작은 사찰에서 수행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정성을 이번 기부에 담았다. 스님은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더욱 크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했다"며, "불교계 스님들과 불자들이 불교병원의 미래 성장과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동참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기부 소회를 밝혔다.

청주의 한 시골 마을 작은 절에서 수행 중인 **희찬스님**이 2월 2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희찬스님은 자동차도 없이 2G 휴대폰을 사용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이어오며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왔다. 스님은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의료포교 도량으로서 생명 방생과 자비 의료를 실천하는 데 더욱 크게 발전하길 기원한다"며, "이번 기부에는 속가 부모님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창회가 지난 2월 27일 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의료장비 도입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김해인 동창회장은 "간호사들의 효율적인 간호업무 환경 조성 and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며 기부 소회를 밝혔다.



박순금 불자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병원 발전과 연구 지원을 위해 총 3천만 원을 기부했다. 박순금 님은 3월 10일 불교병원 홍보 및 발전기금 모연을 위한 비품 구입에 써달라며 1천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4월 9일에는 카나비스 헬프 연구 인증 정책 연구소에 1천5백만 원과 AI 헬스케어 & 윤리 연구소에 5백만 원을 연구기금으로 추가 기부했다. 박순금 님은 "불교병원의 미래 성장과 연구 분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부의 뜻을 전했다.

언제나 동국대학교병원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법스님이 3월 10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성법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자비의로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의료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혜철스님이 4월 10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관 건립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혜철스님은 “개원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신관 건립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교병원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기부의 뜻을 전했다.

성지스님이 2025년 4월 ‘서울불교국제박람회’의 권선모연에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불교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과 **운문사 사중**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각각 5백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기부했다. 명성스님은 개인적으로 5백만 원, 운문사 사중은 별도로 5백만 원을 보시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원 20주년을 축하하고, 병원이 생명존중과 자비의로 실천의 중심 도량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발원하는 마음을 담아 회향했다.



우룡스님이 4월 15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우룡스님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개선과 병원의 지속적인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묵스님이 4월 1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생명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따뜻한 의료를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정묵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의료 포교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대종사**는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과 의료인재 양성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자광대종사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아 자비 의료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중심 병원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병원의 의료포교 역할 강화와 미래 성장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부자	기부액(원)	100만원 미만 기부자																																								
희찬스님	100,000,000	각무스님	권오형	김미영	김용숙	김태민	대한원스	요전스님	박재남	보광스님	소는숙	안도화	유미숙	이명희	이원지	이현창	전아정	정현덕	진솔희	최진식	현진스님	강경민	권일진	김미옥	김용희	김태숙	대한불교	묘화스님	박재숙	보리수	소정자	안민아	유서영	이무소	이원찬	이현경	전용화	정혜미	진영숙	최진영	해광스님	
우룡스님	20,000,000	강경림	권재영	김미진	김원교	김태영	조계종	무관스님	박재영	보영스님	소행원	이문석	이유나	이현숙	이유진	이현진	이형성	정원용	정혜민	진유진	최창원	해근스님	강기선	권정미	김미형	김유민	김태윤	봉탁사	우구스님	박정기	본각스님	손경아	안성희	유성태	이문정	이유라	이혜근	진은영	진입자	최창윤	해능스님	
(주)아라니아	20,000,000	강남발	권태웅	김미화	김유영	김태윤	대한불교	우룡스님	박정민	봉만스님	손구열	안수현	유소라	이문희	이혜숙	이현숙	전익준	정혜주	차신석	최창익	해능스님	경개발	권태형	김민규	김유진	김태은	조계종	무통스님	박정민	부경스님	손귀득	안숙자	유시은	이문희	이유진	이혜영	전재용	정혜주	차수남	최태호	해도스님	
자광스님	50,000,000	강도림	권해경	김민성	김유진	김태희	용주사	문병모	박정애	부동스님	손기원	안영길	유영자	이미란	이유미	이혜영	전준우	정혜진	차여림	최해원	해륜스님	강동림	권윤열	김민아	김유희	김태희	대한불교	문선희	박정자	부산두지	손동대	안인숙	유영철	이미수	이은미	이혜원	정경숙	정화스님	차육권	최현정	해안스님	
박순금	30,200,000	강명숙	권희경	김민정	김윤성	김하겸	조계종	문성옥	박정희	전문정	손두리	안정운	유정임	이미숙	이은미	이효준	정경윤	정한기	차행운	최혜진	해연스님	강민희	권희재	김민주	김윤희	김하연	전국	문송이	박정희	부안리	손영희	박정희	이민정	이은정	이화영	정경은	정환기	차행운	최혜진	해연스님		
백수활	15,000,000	강법주	금오스님	김민지	김은경	김학준	부귀니회	문수진	박재현	부일팔터	손민표	안준성	유정형	이미정	이은자	이효정	정경철	제아람	차소현	최홍준	해일스님	강법주	금용사	김민호	김은균	김한성	대한불교	문장우	문정우	박종옥	안지은	유지영	이미화	이정영	정경원	제일한반	채송아	최효선	해정스님			
혜철스님	10,150,000	강석진	기강우	김병조	김은미	김해옥	조계종	문지혜	박종학	삼종테크	손석호	안진희	유창국	이민성	이은주	이희정	정관스님	조갑자	채은미	최효식	훈성스님	강선주	기부트라	김병환	김은영	김해인	원작정사	문진웅	박주영	상해스님	손수현	안창현	유현숙	이백성	이은지	이희주	정규평	조경애	채지원	최희원	홍민재	
성법스님	10,000,000	강세연	모금함	김보민	김은영	김해정	대한불교	문효남	안향옥	박주현	상오스님	손승희	안창현	유형주	이병기	이은진	이희지	정기남	조남희	최보혜	스데미	성지스님	10,000,000	강시우	김가빈	김보성	김은정	김향숙	조계종	민상연	박주형	상	지순은	한현희	윤기화	이병훈	이자윤	인승준	정희순	규열파마	홍순지	
성지스님	10,000,000	강연주	김가연	김보수	김은주	김현구	대한불교	밀봉암	박준형	새한선원	손인식	안현정	윤문영	이성미	이재원	밀진스님	정다은	조민주	창진스님	바다	홍여옥	강이일	김강우	김보영	김은진	김현우	원작정사	문진웅	박주영	상오스님	손수현	안창현	유현숙	이백성	이은지	이희주	정규평	조경애	채지원	최희원	홍민재	
정목스님	10,000,000	강은경	김강림	김보연	김은지	김현규	조계종	밀원스님	박종희	서경진	손정민	안혜정	윤문영	이성미	이재우	임가원	정동희	조새미	최경미	김경아	탄하스님	강지영	김강희	김보형	김을생	김현숙	천대종	소개소	박지형	서	린	손주영	안창현	유현숙	이백성	이은지	이희주	정규평	조경애	채지원	최희원	홍민재
지용스님	10,000,000	강인자	김강태	김보해	김은희	김현우	대한불교	간병인	박지현	서다영	손주영	안광영	윤민지	이상민	이재우	임가원	정동희	조새미	최경미	김경아	탄하스님	강지영	김강희	김보해	김을생	김현숙	천대종	소개소	박지형	서	린	손주영	안창현	유현숙	이백성	이은지	이희주	정규평	조경애	채지원	최희원	홍민재
석일스님	5,000,000	강태양	김강희	김상기	김의현	김현진	대광사	박건희	박진아	시스템	손지선	안원준	윤복연	이상소	이재훈	임나현	정목스님	조소영	최규래	탄하스님	홍인스님	강태양	김강희	김상기	김의현	김현진	대광사	박건희	박진아	시스템	손지선	안원준	윤복연	이상소	이재훈	임나현	정목스님	조소영	최규래	탄하스님	홍인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5,000,000	강한린	김건우	김성근	김이수	김현희	대원스님	박경문	박진우	서림통상	손창종	양유리	윤서현	이상말	이정민	임동후	정미라	최길구	대광떡집	홍주혜	강해성	김경숙	김성관	김익환	김형수	대진스님	박경선	박진채	서미경	손재영	양인숙	윤선윤	이상말	이정민	임동후	정미라	최길구	대광떡집	홍주혜			
명성스님	5,000,000	강현숙	김경숙	김성모	김인숙	김혜준	도경원	박경자	박창훈	서민주	손효국	양재준	윤성현	이상이	이정숙	임미아	정미선	조수진	최동률	엽갑사	최원스님	강해진	김경숙	김성현	김인영	김혜숙	도경원	박관	박재민	서병혜	윤성혜	이정민	임동후	정미라	최길구	대광떡집	홍주혜					
박해성	5,000,000	강희정	김경아	김서울	김인자	김혜연	도광스님	박귀영	박재희	서보영	손효진	양지영	윤수임	이상현	이정순	임병찬	정병렬	최아영	최동훈	표근종	황귀자	경보호	김경애	김석호	김인하	김혜연	도광스님	박귀영	박재희	서보영	손효진	양지영	윤수임	이상현	이정순	임병찬	정병렬	최아영	최동훈	표근종	황귀자	
원지스님	5,000,000	경일스님	김경의	김선아	김재은	김혜정	도원스님	박기현	박태현	서영문	송대영	임준필	윤성환	이석래	이정은	임성우	정성민	조원복	최문진	프레스	황민선	경일스님	김경의	김선아	김재은	김혜정	도원스님	박기현	박태현	서영문	송대영	임준필	윤성환	이석래	이정은	임성우	정성민	조원복	최문진	프레스	황민선	
익명	5,000,000	경주농협	김경호	김선옥	김재은	김혜정	도일스님	박대희	박해련	서영란	송보은	여세동	윤원주	이선아	이정현	임소피	정성애	조윤영	최민석	하경민	황석희	경주농협	김경호	김선옥	김재은	김혜정	도일스님	박대희	박해련	서영란	송보은	여세동	윤원주	이선아	이정현	임소피	정성애	조윤영	최민석	하경민	황석희	
연우회	4,852,400	하남로	김경희	김선희	김재철	김혜진	도진스님	박동진	박현숙	서영주	송은호	여옥스님	윤재용	이선희	이정훈	임수아	정성훈	조은주	최병곤	하성태	황선순	하남로	김경희	김선희	김재철	김혜진	도진스님	박동진	박현숙	서영주	송은호	여옥스님	윤재용	이선희	이정훈	임수아	정성훈	조은주	최병곤	하성태	황선순	
진*스님	3,000,000	경전스님	김관희	김성희	김재홍	김호준	도한호	박동화	박현식	서영진	송좌근	여옥상	윤재용	이성화	이정화	임수진	정수민	조영성	최병철	하소임	황수찬	경전스님	김관희	김성희	김재홍	김호준	도한호	박동화	박현식	서영진	송좌근	여옥상	윤재용	이성화	이정화	임수진	정수민	조영성	최병철	하소임	황수찬	
홍영춘	3,000,000	경표악동	김광기	김성국	김정미	김홍기	동국대학	박명희	박현영	서은지	송진혁	여현철	윤재호	이소영	이정희	임영선	정숙희	조익환	최복보	하윤정	황영지	경표악동	김광기	김성국	김정미	김홍기	동국대학	박명희	박현영	서은지	송진혁	여현철	윤재호	이소영	이정희	임영선	정숙희	조익환	최복보	하윤정	황영지	
정안스님	2,000,000	개림운수	김광모	김성민	김정미	김한래	원불교회	박미영	박현정	서준	송한숙	염윤정	윤정선	이소정	이종철	임윤정	정소호	조정숙	최상연	하정희	황은진	개림운수	김광모	김성민	김정미	김한래	원불교회	박미영	박현정	서준	송한숙	염윤정	윤정선	이소정	이종철	임윤정	정소호	조정숙	최상연	하정희	황은진	
한국에스웨이	2,000,000	고금자	김국현	김성원	김정민	김효민	동국대학	박미혜	박현주	서지혜	수현스님	영남	윤정임	이송이	이종현	임재범	정승은	조정아	최신아	하정원	황용숙	고금자	김국현	김성원	김정민	김효민	동국대학	박미혜	박현주	서지혜	수현스님	영남	윤정임	이송이	이종현	임재범	정승은	조정아	최신아	하정원	황용숙	
김가영	1,550,000	고기환	김귀례	김성준	김정배	김효연	동국대학	박민정	박해정	서정현	신경근	오경석	윤정희	이수민	이주택	임태선	정승택	조주연	최성욱	하해원	황원진	고기환	김귀례	김성준	김정배	김효연	동국대학	박민정	박해정	서정현	신경근	오경석	윤정희	이수민	이주택	임태선	정승택	조주연	최성욱	하해원	황원진	
주은자	1,300,000	고미선	김귀자	김세민	김정수	김효주	원진호루	박봉선	박해영	서태권	신경민	오경석	윤정희	이수민	이주현	임창영	정승현	조하진	최수빈	한경선	황유경	고미선	김귀자	김세민	김정수	김효주	원진호루	박봉선	박해영	서태권	신경민	오경석	윤정희	이수민	이주현	임창영	정승현	조하진	최수빈	한경선	황유경	
하형근	1,300,000	고영희	김규빈	김세일	김정애	김효진	동국대학	박민화	박효빈	서현지	신경진	오경석	윤정희	이수민	이주현	임창영	정승현	조하진	최수빈	한경선	황유경	고영희	김규빈	김세일	김정애	김효진	동국대학	박민화	박효빈	서현지	신경진	오경석	윤정희	이수민	이주현	임창영	정승현	조하진	최수빈	한경선	황유경	
금곡스님	1,200,000	고재영	김규환	김세희	김정민	김희경	동국대학	박민화	박효빈	서현지	신경진	오경석	윤정희	이수민	이주현	임창영	정승현	조하진	최수빈	한경선	황유경	고재영	김규환	김세희	김정민	김희경	동국대학	박민화	박효빈	서현지	신경진	오경석	윤정희	이수민	이주현	임창영	정승현	조하진	최수빈	한경선	황유경	
고정희	1,100,000	고지현	김근우	김소현	김정형	김희선	동성스님	박선지	박후분	서희선	신명진	오경석	윤	탁	이순영	이준우	파마	정영화	조현일	최승임	의로기	고지현	김근우	김소현	김정형	김희선	동성스님	박선지	박후분	서희선	신명진	오경석	윤	탁	이순영	이준우	파마	정영화	조현일	최승임	의로기	
김현웅	1,100,000	공민지	김기연	김수동	김정혜	김희은	동진스님	박성연	배기향	석길암	신성숙	오성은	윤혜진	이승욱	이준호	장규희	정성희	조정숙	최상연	하정희	황은진	공민지	김기연	김수동	김정혜	김희은	동진스님	박성연	배기향	석길암	신성숙	오성은	윤혜진	이승욱	이준호	장규희	정성희	조정숙	최상연	하정희	황은진	
윤금섭	1,030,000	공자윤	김남일	김수현	김정희	나경선	대원스님	박성원	배상만	석성현	신성철	오수진	윤혜진	이승욱	이준호	장규희	정성희	조정숙	최상연	하정희	황은진	공자윤	김남일	김수현	김정희	나경선	대원스님	박성원	배상만	석성현	신성철	오수진	윤혜진	이승욱	이준호	장규희	정성희	조정숙	최상연	하정희	황은진	
고양시 시민연합회	1,000,000	공효열	김남일	김수현	김정희	니경선	대원스님	박성원	배상만	석성현	신성철	오수진	윤혜진	이승욱	이준호	장규희	정성희	조정숙	최상연	하정희	황은진	공효열	김남일	김수현	김정희	니경선	대원스님	박성원	배상만	석성현	신성철	오수진	윤혜진	이승욱	이준호	장규희	정성희	조정숙	최상연	하정희	황은진	
故 김용일	1,000,000	곽복석	김남희	김수희	김조은	나기영	대원스님	박성원	배서연	석성윤	신성현	오영미	윤정희	이승욱	이준호	장규희	정성희	조정숙	최상연	하정희	황은진	곽복석	김남희	김수희	김조은	나기영	대원스님	박성원	배서연	석성윤	신성현	오영미	윤정희	이승욱	이준호	장규희	정성희	조정숙	최상연	하정희	황은진	
대학악곡	1,000,000	곽수빈	김단희	김소숙	김종태	나예민	대원스님	박성파	배서연	석선소	신수현	오영주	이경미	이승현	이자영	이재정	정원기	창성	최원우	한소희	황해정	곽수빈	김단희	김소숙	김종태	나예민	대원스님	박성파	배서연	석선소	신수현	오영주	이경미	이승현	이자영	이재정	정원기	창성	최원우	한소희	황해정	
돈관스님	1,000,000	광정스님	김단혜	김소숙	김종태	나예민	대원스님	박성파	배서연	석선소	신수현	오영주	이경미	이승현	이자영	이재정	정원기	창성	최원우	한소희	황해정	광정스님	김단혜	김소숙	김종태	나예민	대원스님	박성파	배서연	석선소	신수현	오영주	이경미	이승현	이자영	이재정	정원기	창성	최원우	한소희	황해정	
돈관스님	1,000,000	광정스님	김단혜	김소숙	김종태	나예민	대원스님	박성파	배서연	석선소	신수현																															

여러분과 함께하는 **gil**

퀴즈

○○○은 건관절의 내재적 질환 없이 능동적 및 수동적 운동 제한이 동시에 발생하고 통증이 동반되는 만성질환입니다. 의학적 진단명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adhesive capsulitis)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동결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주로 50대에 흔히 나타나며,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는 쪽 어깨에 더 자주 생깁니다. ○○○은 무엇일까요?

의견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님의 칼럼에서 고통이 인생의 기본값이라는 말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글을 읽으며 점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행복한 줄 알았던 생각이 바뀌었고,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메시지가 오래도록 여운을 남깁니다.

이정★ 님

칭찬

저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환자입니다. 오늘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면서 병원 모바일 앱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처음 사용하는지라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직원분께 문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시연까지 함께해 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이런 모바일 앱 사용이 서툴러서 좋은 기능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늘 친절하신 병원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최기★ 님



퀴즈의 정답, 다양한 의견, 칭찬글을 작성하여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나호 퀴즈 정답 : give&기부 tree / 정답자 : 강상★

참여 방법

- 1 참여 내용과 이름,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sokuon@dumc.or.kr
- 2 퀴즈 / 의견 / 칭찬 중 택 1 참여 가능합니다.
- 3 퀴즈 정답 및 선정된 내용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불교계 (☐ 스님 ☐ 불자) ☐ 일반 (☐ 환자 ☐ 보호자) ☐ 교직원 ☐ 동문 ☐ 기타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 자택 ☐ 사찰 ☐ 직장				
휴대폰번호	010 —	유선전화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 현물기부(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병원 · 대학) 발전기금 ☐ 지정기금 (지정)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병 원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일산병원(중축기금) ▶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778001-00-059986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한의원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동 국 대 학 교 분 당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자동이체(CMS)	출금일 : 매월() ☐ 1일 ☐ 18일 ☐ 25일 (총 원) 예금주 : ☐ 기부자와 같음 은행명 : 계좌번호 :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수집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보유기간 :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 후원자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상기와 같이(효성에프엠에스㈜, 국제청(기부금 세제혜택 근거자료)동의합니다.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이메일 ▶ hongbo@dumc.or.kr / 팩스 ▶ 031·961·9239
- **문 의** :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9000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몸이 아파도 사는 게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상이 늘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힘겹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취청일 때 손을 내밀어주고 기대고 싶을 때 어깨를 내주고
지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동국대학교병원의 마음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곳에 풀칠하세요.

정
제
선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자비의 꽃을 피우다
치유의 열매를 키우다



자비의료실천의 숲을 이루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숲을 이루고,
그 숲이 우리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주듯이,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자비의료를 실천하는
큰 숲을 이루어 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여러분과 함께
생명존중과 자비의 인술로
더 큰 치유의 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GIVE&기부 TREE는 건강한 삶과 나눔의 가치를
키우는 나무를 의미하며, 동국대학교병원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바로 기부에 참여하셔서 나눔의 기쁨과 보람을
함께 해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신관건립기금)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국민은행 778001-00-059986 예금주: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문의 031·961·9000

동국대학교경주병원·한의원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문의 054·770·8130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문의 031·710·3712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생명존중과 자비의료실천으로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